이동국 "유럽서 뛰고 싶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수 이동국(28)이 구단의 양해를 얻어 개인훈련을 하며 유럽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항은 휴식을 끝내고 10일부터 송라 클럽하우스에서 새해 첫 훈련에 들어갔는데 이동국은 구단으로부터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 훈련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김현식 포항 사장은 "언제부터 팀 훈련에 합류한다는 건 정해 놓지 않았지만 일단 유럽 리그의 이적 가능 기간인 1월 동안은 이동국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독일행 모색
2~3개 팀서 관심 보여

김 사장은 "지난달 이동국과 만나 국내 타 구단이나 일본 J-리그 팀으로의 이적은 불가하지만 유럽 리그 진출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구단 방침은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머물며 체력 훈련 등을 하고 있는 이동국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잉글랜드, 독일 클럽에 입단을 타진 중인데 2~3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까지 포항과 계약이 돼 있는 이동국은 유럽 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26일 터키 안탈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적이 성사되지 못하면 포항과 재계약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리그 복귀…수원 안정환

"신인의 자세로 뛰어 팀우승에 기여 할터"

"7년 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한 만큼 신인의 심정으로 팀 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홀연히 유럽축구 무대에서 진출해 산전수전을 겪은 '반지의 제왕' 안정환(31)이 마침내 수원 삼성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7년 만에 K-리그 무대로 돌아왔다.

안정환은 10일 오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가진 입단 기자회견에서 "우승컵을 안아보고 싶었다.

이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을 골랐고 최종적으로 수원을 선택했다"며 밝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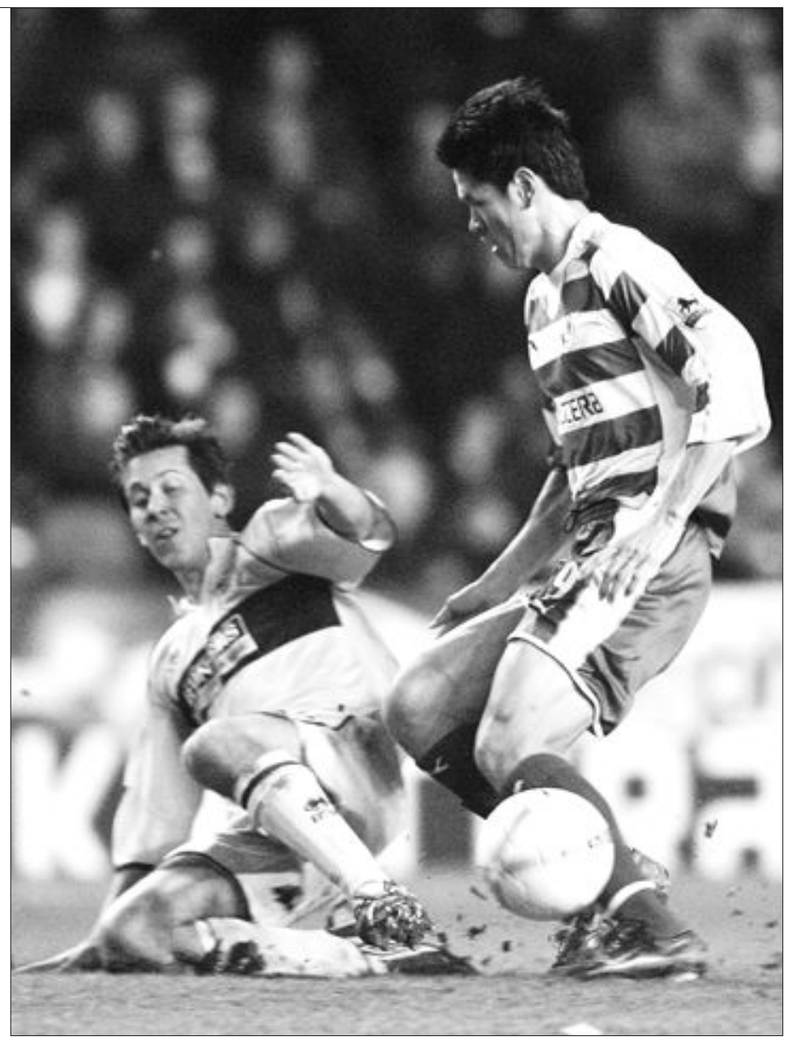
국내 최고의 골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안정환이지만 지난 1998년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후 여태껏 정규리그 우승컵을 안아본 적이 없다.

축구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싶다는 소망이 안정환의 발길을 수원으로 돌리게 만든 것이다.

푸른색 수원 유니폼을 받고 포즈를 취한 안정환은 "마치 1998년 신인때 느낌이 든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어서 부담이 앞선다"며 "공격수로서 개인적 욕심보다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6개월 '무적(無籍)' 신세였던 안정환은 "그동안 쉬었던 게 장단점이 있었다. 쉼 없이 축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팀이 없다는 정신적인 부담도 컸다"며 "솔직히 지난 공백의 시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간절했던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레딩FC의 설기현(오른쪽)이 10일 영국 레딩의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6~2007 잉글랜드 FA컵 축구대회 64강전에서 번리의 존 할리로부터 태클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기현 풀타임 출전
레딩 FA컵 32강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설기현(28·레딩FC)이 최고 전통의 잉글랜드 FA컵 축구대회에서 풀타임 활약했고 소속팀 레딩은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번리를 3-2로 꺾고 대회 32강에 진출했다.

설기현은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마데스키 홈구장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서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했다.

스티브 코펠 레딩 감독은 정규리그 경기에서 중용하던 글렌 리틀 대신 설기현에게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맡겼다.

설기현은 전반 33분과 38분, 후반 7분, 8분, 16분 등 다섯 차례나 측면에서 예리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번번이 수비벽과 골키퍼 선방에 막혀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를 빛낼 광주·전남 스타

'클레이 여왕'…우리은행 이 보 나

"전국체전·월드컵 우승 내것"

"탕!탕!,탕!탕!"

'클레이의 여왕' 이보나(26·우리은행)의 총성이 경남 창원 종합 사격장의 고요한 새벽을 깨운다.

겨울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 동계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이보나의 새해 포부는 여느 스포츠 스타들과는 사뭇 달랐다.

"올해 목표요? 목표는 있지만, 목표를 두고 운동하진 않아요. 사격은 심리전이거든요.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목표를 가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냥 열심히 훈련해 좋은 사격선수로 인정받고 싶어요."

동계훈련 통해 집중력 강화

이보나는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사격 트랩에서 동메달, 더블트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당당히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보여줬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선 손혜경, 김미진과 팀을 이뤄 여자 더블트랩 단체전에서 합계 303점으로 2위 중국(288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4월에는 제36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트랩에서 결선합계 86점(64+22점)을 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신안군 암태도 출신인 이보나는 광주서광여중(현 서광중) 1학년 때 사격에 입문, 전남여고를 거칠 때까지는 공기소총 선수였다.

1999년 국군체육부대인 상무 입단하면서 순발력이 뛰어나 클레이 사격에 적합하다는 주위 권유에 따라 클레이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2004아테나 올림픽 이전까지 이보나의 미래는 암울했다.

2001년 서울월드컵대회에서 6위, 아시아 클레이 선수권대회에서 14위를 한 것이 개인전 경력의 전부였고, 1발 차로 2002 부산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지 못하는 등 좌절도 숱하게 겪었다.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거둔 성과이기에 이보나가 따낸 메달은 그 무엇보다 빛나 보인다.

"1발 차로 놓친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피말리는 경험을 워낙 많이 해 오히려 담담하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올림픽 무대 다시 서야죠

이보나는 다만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더블트랩 종목이 빠진 게 속상하다. 아테네에서의 첫 경험이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 된 것.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일단 올해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또 월드컵 사격대회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올해 광주대표로 전국체전에 나서는 이보나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광주를 위해 금메달을 따내고 싶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끝〉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캘린더

11일(목)
▲ATP테니스 쿠융 클래식 2일째(08 : 50·SBS스포츠)
▲종합탁구 선수권대회(14 : 10·KBS1)
▲프로농구〈KTF-전자랜드〉(18 : 50·X-ports)
▲V-리그〈현대건설-GS칼텍스〉(16 : 30·KBSN Sports), 〈한국전력-대한항공〉(19 : 00·KBSN Sports)

12일(금)
▲휠라컵 서울국제알파인 스키대회(13 : 50·MBC)
▲프로농구〈SK-KCC〉(18 : 50·Xports)